

“품질한국”으로 가격의 중국, 기술의 일본을 돌파하자

글·윤덕균 교수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우리 경제가 IMF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외화의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의 실패에서 찾고 있으나, 근원적으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 즉 낮은 생산성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 데 있다. 그러므로 IMF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은 단순히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하는 외환관리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혁명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쉽게 설명하면 회사에서 부도가 났는데 장단기채를 가리지 않고 급전이라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한 자금부장의 책임만을 추궁해서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제때에 판매를 못한 판매부장의 책임,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지 못한 생산부장의 책임 그리고 좋은 작업자를 공급하지 못한 인사부장의 책임이 동시에 제기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판매력이나 생산력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자금동원력만을 높이면 일시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잘못하면 기업의 부도 규모만 크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술의 일본과 가격의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

부츠 앨런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의 과제는 기술로는 일본을 당하지 못하고, 가격으로는 중국을 당하지 못하는 호두크랙커에 들어간 호두모양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IMF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으로 보면, 외환 관리상의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원류관리 측면에서 보면 수출부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노사관계 개선을 통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타파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경제 문제의 해답은 부츠앨런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취약점에서 찾을 수 있다. 부츠앨런 보고서에서 한국이 가격으로는 중국을 못 당하고, 기술로는 일본을 못 당하기 때문에 호두크랙커에 들어있는 호두 신세라고 했는데, 반대로 일본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고, 중국보다는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바꿔보면 해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경제상황과 유사한 한국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경제정책은 고비용을 감내하면서 고효율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인데 품질경영으로 이를 해결한 사례를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과 똑같은 경험을 했던 일본의 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일본 경제는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의 저임공세와 선진국의 개방화 물결 아래 고전하는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이 1970년대 일본의 경제 상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 경제는 1964년 동경 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 1969년에는 동경대학을 문 닫을 정도로 노사분규는 심해지면서 임금은 올라가고 한국과 같은 저개발 국가의 저임공세 하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였다. 그때 일본 기업들이 선

택한 돌파구가 품질입국이었다.

그 당시 일본은 기술로는 미국을 당할 수 없고 가격으로는 대만이나 한국 등의 후발국을 당할 수 없으니 가격 경쟁력을 포기하고 품질로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본각의에서 품질입국을 선언하고 전 산업을 품질경영체제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즉 연구개발보다는 모방을 하면서 원조보다 좋은 품질로서 대응했던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이 품질입국을 선언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최근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표한 “품질경영 장기발전 방향수립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95년에 지불한 품질비용이 27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품질 불량 등 품질 실패 비용만도 17조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점은 우리 산업의 불량율이 첨단 기술이 모자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성부족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관리 기술로 값싸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품질은 작업원의 기능과 작업원의 정성을 동기부여 하는 관리기술을 모체로 해서 발휘되는 것이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신도시 하자 문제가 심각해서 아파트를 조사해 보니 총 하자 건수가 484건인데 그 중 80%가 벽지 타일 등 마감재 시공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품질 불량 문제를 검토해 보면 약 80%가 작업원의 의식문제에서 연유되고 20%가 기술적인 문제로 귀착된다. 이 끝마무리 문제만 해결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품질국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넘어야 할 대충대충 병, 그러나 끝마무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우리 작업자들을 가지고 과연 넘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팔만대장경에서 보여 준 우리 선조들의 장인정신이다. 팔만대장경은 81,340명의 방대한 불사로서 5,200만여 자(字)의 글씨에 오자와 탈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러한 현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불가사의한 완전 품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1자삼재의 정성, 즉 글자 한자를 새기고 세번 절하면서 부처님의 법력으로 몽고의 병란으로부터 조국을 구하겠다는 정성의 산물이다. 최근과 같은 국경이 없는 경제 전쟁에서 우리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던 우리 조상들의 一字三拜의 정성에서 복고할 필요성이 있다.

미창유연(美創遊軟)의 화두로 미국의 중후장대, 일본의 경박단소에 대응하자

1970년대 일본도 이유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것과 똑같은 외환 위기를 겪었다. 오일 쇼크로 일본의 전 산업이 도산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때 그들은 자원빈국으로서 미국의 중후장대(重厚長大)산업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화두를 경박단소(輕薄短小)에서 찾았던 것이다. 미국은 광활한 대륙,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중후장대(重厚長大)로 세계를 제패하였는데, 미국의 1/25에 불과한 국토와 자원도 빈곤한 일본이 중후장대로 맞받아치기엔 역부족이었다. 여기서 일본이 찾아낸 미국을 이기는 비법은 그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작고, 자원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핸디캡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경박단소였다. 한번 마음을 바꿔 먹었더니 그렇게도 일본의 약점으로 보이던 축소지향적인 일본인의 성격이 경박단소의 실용화로 나타나고 그것은 일본 제품의 경쟁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오디오, 가장 가벼운 캠코더 등 그들의 축소지향적 성격이 세계인의 요구와 잘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도 IMF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국가경영의 장기비전의 화두를 우리 민족의 훌륭한 감성품질에 대한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섬나라인 일본과 달리 반도이기 때문

에 역사적으로 외침을 많이 받아 왔다. 그래서 900번의 외침 중에서 30번은 우리 힘으로 막았지만 870번은 도망가면서 피했다고 한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법대로 도망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섬나라인 일본 사람들보다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반도의 특성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능력은 뛰어난 창조적인 민족이다.

일본이 섬나라인 영국처럼 보수적이면서 전통에 순종적인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도인 이탈리아 사람들과 같이 창조적인 민족이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적인 감성 품질을 살릴 수 있는 미창유연의 화두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박단소에 대해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화두이다. 미국의 중후장대, 일본의 경박단소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국가비전은 품질한국으로서 그 실천 화두는 미창유연(美創遊軟)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미(美)는 아름다움이며, 창(創)은 새로움, 유(遊)는 부드러움이다. 우리의 결점이라고 생각했던 말 안 듣고 변화를 추구하는 성질을, 한번 마음을 바꿔 창조성을 개발하면 미창산업의 꽃을 피울 수 있으며, 놀기만 좋아하는 성격을 키워서 개발하면 유연산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연구개발로 지금의 IMF를 벗어나기에는 너무 요원하며 지금 당장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미(美)를 창조하는 디자인이야말로 가장 값싸고 빨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창(創)을 강조하는 벤처산업, 유(遊)의 화두를 실천하는 관광산업과 게임기 산업, 그리고 연(軟)의 화두를 실천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야말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미창유연에서 찾는 지방자치 단체의 상생경영

21세기는 중국의 시대라고 한다.

우리가 가끔 농담으로 12억 인구가 한꺼번에 소변

을 보면 황하강이 넘친다든가 12억 인구가 일제히 점프를 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의 위력보다도 더 클 것이라는 농담을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국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동남아의 상권을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태국 상장기업의 81%, 인도네시아 상장기업의 73%, 말레이시아 상장기업의 62%, 싱가포르 상장기업의 81%가 화교 몫이며, 가장 적다는 필리핀 상장기업의 50%가 화교들 몫이다. 이러한 전체 화교를 포함한 중국사람들 즉 팬 차이나의 GDP는 2002년이면 9조8천억 달러로서 미국을 추월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사실만으로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리라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미국에 있는 중국 두뇌이다. 필자가 있던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전자공학과에는 교수가 120명쯤 되는데 이중에서 30명이 화교이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47,000여명으로 가장 많고, 더욱 놀라운 것은 대만이 또한 37,000명이 있고 홍콩이 18,000명,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출신 약 10만명의 화교 유학생을 미국이 길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리콘 밸리 공장장의 40%가 중국 사람이며 유명한 인텔사 엔지니어의 20%가 중국사람이다. 물론 실리콘 밸리의 배후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1/4이 화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리콘 밸리에서의 중국인의 활동은 눈부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가 로엘 고등학교인데 여기에 화교들의 진학률이 너무 높아서 커트라인을 정하는데 중국인은 61점, 백인은 59점이며 흑인은 51점인데도 중국인들의 점유율이 너무 높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민족 차별이라고 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는데 같은 커트라인으로 모집한다면 대부분 중국인 차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시대가 도래했을 경우 우리 산업은 구조조정

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해답은 유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시대가 거한 후 찾아온 미국의 시대에 거대한 미국과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독일, 프랑스 등 그런대로 큰 나라와 대국의 주변국으로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소국의 산업을 관찰하면 우리 산업의 21세기 비전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들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나라보다 2~3배 크거나 아니면 우리의 1/10에서 1/2정도로 작은 나라이며 우리보다 인건비는 4~5배 비싸면서 세계에서 가장 GNP가 높은 나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산업이 미창유연 산업이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면 한 건당 적어도 3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미창유연산업으로 대표되는 디자인 개발에는 7%에 불과한 2000만원이면 된다. 그래서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유럽국가들은 연구개발보다는 디자인 개발에 치중하여 그것으로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패션의 나라 이태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생산국 네덜란드, 세계에서 시계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스위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만년필을 만드는 나라 독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또한 공통적으로 관광수입이 많다는 사실이다. 유럽 각국에서는 관광을 환경·첨단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할 3대 산업으로 꼽고 집중 육성하고 있다. 관광 산업 육성덕택에 스페인의 경우 91년 144억7,000만 달러, 프랑스는 89억6,000만 달러, 이탈리아 63억6,000만 달러의 관광흑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관광수지 흑자로 스페인은 무역수지 적자의 44%를, 프랑스는 34%를, 이탈리아는 56%를 보전했다.

여기에 관광산업과 수출산업의 외화가득률을 고려

해 수익률을 계산하면 외국인 관광객 1명을 유치하는 것은 반도체 257개나 TV 18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5명이 우리나라를 찾으면 자동차 1대를 수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우리 국가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각 지방 자치단체는 미창유연의 화두를 가지고 21세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육제도의 개편이다. 예를 들면 21세기에 대구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섬유산업보다는 패션산업으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그때를 대비해서 대구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미술의 비중을 높이고 전학생이 60씩 크레파스를 쓰도록 해야 한다. 12색 내지 24색 크레파스를 써서는 이태리인들이 만들어 내는 색감을 익힐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은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 관광객 1%만 유치하여도 1,200만 명이 되며 5%를 유치하면 6,000만 명이 된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관광안내원을 길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 전 초등학교는 한자공부를 시켜야 하고 중학교는 한문공부를 고등학교는 중국어를 제2외국어의 필수과목으로 전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물론 인천대학에는 딜러구나 카지노 경영과가 필요할 것이다. 광주는 게임기 산업의 도시로 육성하고 부산은 영화의 도시로, 서울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도시로 가꾸는 등, 각 지방이 상생경영(Win-Win)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자치 행정을 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모든 도시가 첨단산업을 하겠다고 나섬으로써 하나가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차별화된 상생경영의 기틀을 미창유연의 화두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